

# 지금은 방송중

김강석/SBS보도국 사회1부 차장

**2001년** 9월 11일은 세계인 누구에게나 문자 그대로 전대미문 악몽의 날이었다.

그날 밤 10시 50분경 서재에서 미뤄둔 책을 읽고 있는데 큰일이 났다는 아내의 외침을 듣고 거실로 뛰쳐 나갔다.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해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속보 자막이 금방 화면에 떴다는 것이었다. 곧바로 CNN으로 채널을 돌렸다. 과연 쌍둥이 빌딩 북쪽 건물 상단이 피격된 듯 불에 타고 있었고 남쪽 건물에도 비행기 한 대가 돌진해 충돌하는 장면이 계속 재방송되고 있었다. 서둘러 다시 국내 TV로 채널을 돌렸다. 모두 한가하게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었다. 회사로 전화를 돌렸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발생했는데 빨리 드라마를 자르고 뉴스 특보에 들어가지 않고 뭐하느냐고 야근자들을 다그치기 위해서였다. 내가 소속된 사회부는 물론이고 이 전대미문의 사건 담당부서인 국제부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다. 직감적으로 이미 보도본부에 난리가 났구나 뉴스 특보 준비하느라 아수라장이 됐겠구나 싶었다.

10여분이 지난 뒤 국내 TV에도 뉴스 특보가 일제히 시작이 됐다. 그 전까지는 CNN과 국내 TV의 동시화면을 틀어놓고 방송 내용의 일거수 일투족을 체크했다.

CNN은 이미 비행기 자살 테러로 추정된다는 분석 내용을 내놓기 시작했고 곧 이어 워싱턴에 있는 국방성 펜타곤 건물에도 비행기가 돌진해 화재가 발생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뉴스 특보의 제목은 '공격받고 있는 미국'이었다.

쌍둥이 빌딩 남쪽 건물로 비행기가 돌진한 사태에 대해선 우리 기자들이 정체불명의 경비행기

가 빌딩을 들이 받았다는 식으로 방송하기 시작했다. 경비행기라니 저렇게 큰 빌딩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 것이 경비행기라니 다시 전화를 들고 야근자를 찾았다. 저 폭발은 적어도 중형비행기 이상 여객기 정도가 충돌해야 가능한 규모의 것이라고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곧이어 CNN이 빌딩에 충돌한 비행기가 미국여객기임을 알려줬고 남쪽 건물이 붕괴되는 장면마저 보여주는 것이었다.

곧바로 방송국으로 차를 몰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의문 가운데서도 도대체 비행기가 충돌하고 난 뒤 110층의 빌딩이 불과 30여분 만에 붕괴된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의문은 풀렸지만 말이다. 미국 테러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문점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것이면서도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경악에 몸을 떨었다. 테러 관련 소설과 작품을 집필해 온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테러세력들이 폭탄 트럭을 몰고 그동안 자살테러를 해왔다면 조종 훈련을 받고 비행기를 납치한 뒤 자살 충돌이나 추락을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왜 상정하질 못했는가 하는 탄식의 말이었다.

서방과 아랍권과의 세계 대전 구도로까지 몰고 온 세계무역센터 테러 참사는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과 편견과 극단과 맹신 등이 어떤 일을 저지할 수 있나를 보여준 파국의 끝자락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금방 눈을 떠 보면 보도본부의 기자들이 오늘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내일은 예루살렘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종군 취재를 위해 속속 떠나고 있다. 감상적인 상상력조차 허용되지 않는 살벌한 시대가 전쟁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PPFK